주식전략

FOMO는 어디까지 왔는가(2)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분석의 기본 가정

- 불안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벤트에 따른 투자 심리 환기 가능성 주목
- 최근 외국인의 매도는 여전히 차익실현의 성격, 개인은 증시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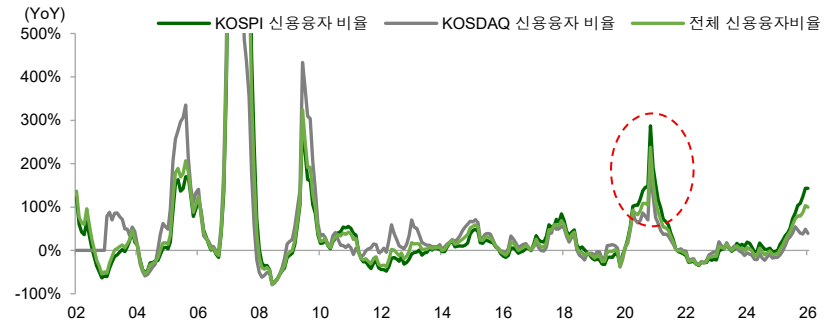
높아진 불안감에도 지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매크로 환경과 수급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계 요인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유가 반등 등 글로벌 매크로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KOSPI 역시 주요 레벨 돌파 속도가 과거 대비 급격히 빨라지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연평균 기준 WTI $81.7/bbl, Brent $87.0/bbl, Dubai $89.9/bbl)이 가장 부담스럽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곧바로 추세 훼손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및 삼성전자 노사 협상 등에 따른 투자 심리 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으나 추가적인 외부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직 증시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급에 대한 생각: 외국인의 차익실현과 개인의 추가매수

외국인이 KOSPI 기준 연간 약 80조원을 매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이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가 필요하다. 절대 금액만으로 수급 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증시 시가총액 확대를 감안하면 외국인의 매도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실제 외국인의 시가총액 기준 KOSPI 보유 비중은 최근 36%까지 상승했다. 한편 신용융자 증가세는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시가총액 대비 레버리지 수준은 2020~2021년 과열국면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에 현재의 상황이 극단적인 투기 과열로 보기에는 이르며 조정 시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신용융자잔고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아직은 정점이 아님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높아진 불안감에도 지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는 주식 할인율 상승 요인, 가장 불안한 것은 아무래도 유가

최근 미국채 10년물·30년물 금리의 동반 상승, 달러 인덱스 강세, 유가 반등은 모두 증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국내 증시의 글로벌 증시와의 동조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대한 민감도 역시 확대된 상황이다. 그동안 시장은 주도 업종과 주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며 매크로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해왔으나 지난주 흐름을 통해 매크로 환경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리·환율·유가가 동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합은 위험자산 전반의 할인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한 변수로 인해 촉발된 고유가 장기화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연평균 기준 WTI $81.7/bbl, Brent $87.0/bbl, Dubai $89.9/bbl).

실제로 연준이 긴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12월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1주일 전 13.6%에서 40.0%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물론 해당 수치는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변화를 반영한 기대값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책 경로를 그대로 의미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주일 만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증시의 추세 전환은 연준의 긴축으로부터 시작된 경험을 투자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실제 정책 방향이 긴축으로 선회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더 이상 금리 인하 혹은 동결을 당연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계 심리를 늦추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도표 2. 미국채 10년물 4.5%, 30년물 5.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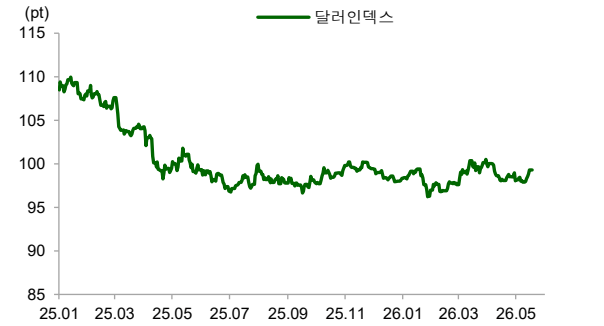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연준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다시 걱정하기 시작한 시장

MEETING DATE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475-500
2026-06-17	0.0%	0.0%	0.8%	99.2%	0.0%	0.0%	0.0%	0.0%	0.0%
2026-07-29	0.0%	0.0%	0.7%	95.0%	4.2%	0.0%	0.0%	0.0%	0.0%
2026-09-16	0.0%	0.0%	0.6%	80.4%	18.3%	0.7%	0.0%	0.0%	0.0%
2026-10-28	0.0%	0.0%	0.6%	76.0%	21.7%	1.6%	0.0%	0.0%	0.0%
2026-12-09	0.0%	0.0%	0.4%	50.6%	40.0%	8.4%	0.6%	0.0%	0.0%
2027-01-27	0.0%	0.0%	0.3%	37.9%	42.7%	16.4%	2.6%	0.2%	0.0%
2027-03-17	0.0%	0.0%	0.3%	32.8%	42.0%	20.0%	4.4%	0.5%	0.0%
2027-04-28	0.0%	0.0%	0.2%	21.3%	38.8%	27.8%	9.9%	1.9%	0.2%
2027-06-09	0.0%	0.0%	0.1%	15.7%	34.2%	30.7%	14.6%	4.0%	0.6%
2027-07-28	0.0%	0.0%	3.9%	20.2%	33.3%	26.8%	12.1%	3.2%	0.5%
2027-09-15	0.0%	0.6%	6.1%	22.0%	32.4%	24.8%	10.8%	2.8%	0.4%
2027-10-27	0.0%	0.7%	6.5%	22.2%	32.2%	24.4%	10.7%	2.8%	0.4%
2027-12-08	0.3%	2.7%	12.0%	25.7%	29.5%	19.6%	7.9%	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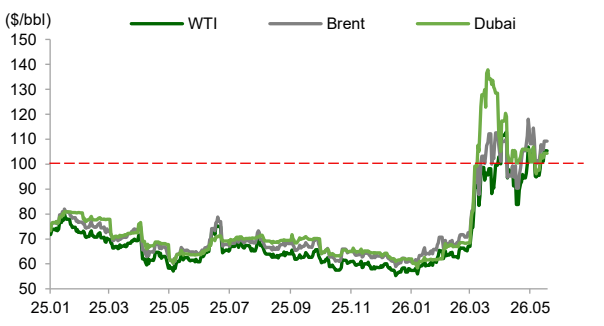
자료 : CME

도표 4. 달러 인덱스 반등은 비미국 증시에 부정적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국제유가 추이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8,000pt의 심리적 벽

매크로 환경 이외에도 장중 기준으로 8,000pt를 기록했다는 심리적 부담도 무시하기 쉽지는 않다. 특히 KOSPI의 주요 레벨 돌파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00pt에서 3,000pt까지는 4,945일, 3,000pt에서 4,000pt까지도 1,754일이 소요됐지만 이후 5,000pt 돌파까지는 92일, 6,000pt까지는 29일, 7,000pt까지는 70일에 불과했다. 펀더멘털 개선과 유동성 유입이 맞물린 결과이기는 하나 현재의 시장이 미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지수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과 차익실현 욕구가 함께 커졌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역시 속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번주 엔비디아의 실적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향후에 시장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이벤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번주 5월 20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술주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다. 물론 최근 3년간 엔비디아는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어 이제는 호실적으로만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역시 단순한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보다 블랙웰 매출 가시성, 마진 흐름,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여부가 더 중요할 전망이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존재하나 AI 중심의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시장 자금은 다시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재차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현재 시장에서 AI 밸류체인을 대체할 만큼 구조적인 이익 성장과 명확한 투자 서사를 갖춘 주도 업종이 아직 부재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협상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역시 주목할 변수다. 긴급조정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향에 따라 국내 대표 기술주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생산 차질 우려가 부각될 경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극단적인 충돌 없이 협상 방향이 정리된다면 최근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훼손할 정도의 변수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27일 국내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최초 상장 예정

여기에 오는 27일 국내 최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함께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동시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주목할 변수다. 단기 매매 수요 증가에 따른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를 유의할 필요는 있겠으나 상승 방향 상품만이 아니라 하락 베팅 상품도 함께 출시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명에서 'ETF'라는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표 6. KOSPI 주요 레벨 돌파 사례 요약

지수	첫 종가 돌파일	직전 1,000pt 구간 소요기간
2,000	2007-07-25	-
3,000	2021-01-07	4,945일
4,000	2025-10-27	1,754일
5,000	2026-01-27	92일
6,000	2026-02-25	29일
7,000	2026-05-06	70일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7.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익일 수익률

기준일	EPS surprise	순이익 surprise	NVDA	S&P 0500	Nasdaq	KOSPI	핵심 내용
26.02.26	7.8%	3.1%	-5.5%	-0.5%	-1.2%	3.7%	블랙웰 성장기대는 유지되었으나 차익실현 매물출회 속 주가 약세
25.11.20	5.4%	2.2%	-3.2%	-1.6%	-2.2%	1.9%	실적은 양호했으나 성장 가속도에 대한 기대 미충족.
25.08.28	6.7%	3.4%	-0.8%	0.3%	0.5%	0.3%	AI 투자 지속 신뢰 회복 및 블랙웰 ramp-up 기대 재확인
25.05.29	4.9%	1.8%	3.2%	0.4%	0.4%	1.9%	실적 기대치 충족하며 무난한 안도 랠리
25.02.27	3.8%	1.5%	-8.5%	-1.6%	-2.8%	-0.7%	블랙웰 ramp-up 비용 반영에 따른 gross margin 하락 속 주가 약세
24.11.21	6.1%	2.7%	0.5%	0.5%	0.0%	-0.1%	성장률 둔화 우려 및 피크아웃 논란 제기되며 주가 반응 제한적
24.08.29	7.4%	3.0%	-6.4%	0.0%	-0.2%	-1.0%	기대치 미스매치. 블랙웰 전환 불확실성 부각되며 주가 약세
24.05.23	13.2%	8.1%	9.3%	-0.7%	-0.4%	-0.1%	주주환원 + 압도적 서프라이즈

자료: 언론종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8. 상장예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목록

자산운용사	ETF명	기초자산	구조	수수료
삼성자산운용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물	0.29%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현물	0.29%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물	0.0901%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현물	0.0901%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물	0.091%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현물	0.091%
KB자산운용	RIS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물	0.091%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현물	0.091%
신한자산운용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현물	0.1%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SK하이닉스	선물	0.1%
한화자산운용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물	0.1%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삼성전자	선물	0.49%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선물	0.25%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선물	0.2%
하나자산운용	1Q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삼성전자	선물	0.091%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SK하이닉스	선물	0.091%

주) 수수료는 연 수수료 기준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수급에 대한 생각: 외국인의 차익실현과 개인의 추가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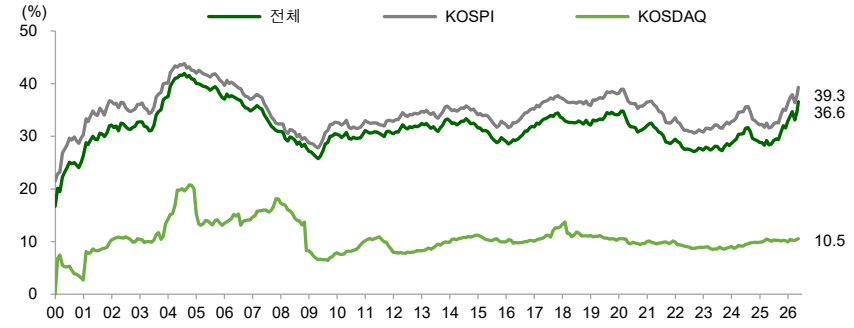
국내 증시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상승 중

외국인이 KOSPI 기준 연간 약 80조원을 매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이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가 필요하다. 단순 매도 금액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절대 금액만으로 수급 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자체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만큼 동일한 비중 조정이라 하더라도 거래 금액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시가총액 기준 KOSPI 보유 비중은 최근 36%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구조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기보다 최근 강세를 보인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신용융자 잔고 기준 증시 과열의 정점은 아니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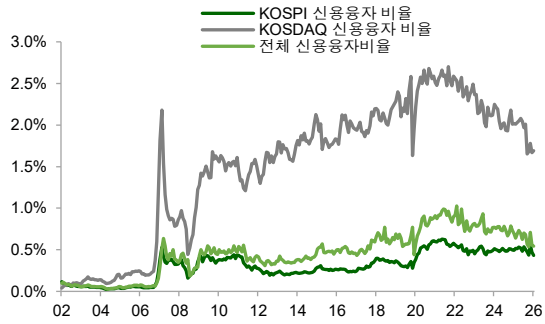
또한, 신용융자 증가 속도를 통해 투자 심리 과열 여부를 점검해보았다. 강세장의 연료가 실적과 유동성에서 신용 레버리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체력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신용융자 잔고는 과거 과열 국면 대비 아직 극단적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과 전년동기 대비 신용융자잔고 변화율은 2020~2021년 동학개미 운동 당시의 고점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를 곧바로 투기 과열로 해석하기보다는 지수 조정 시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9.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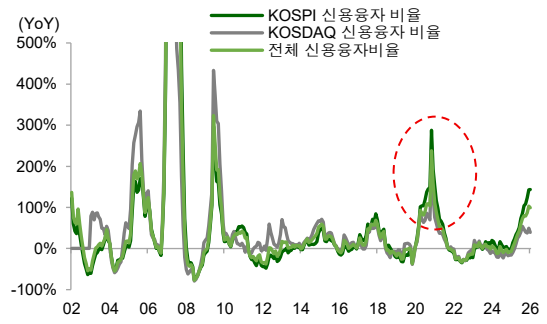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신용융자잔고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신용융자잔고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아직은 정점이 아님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금융투자협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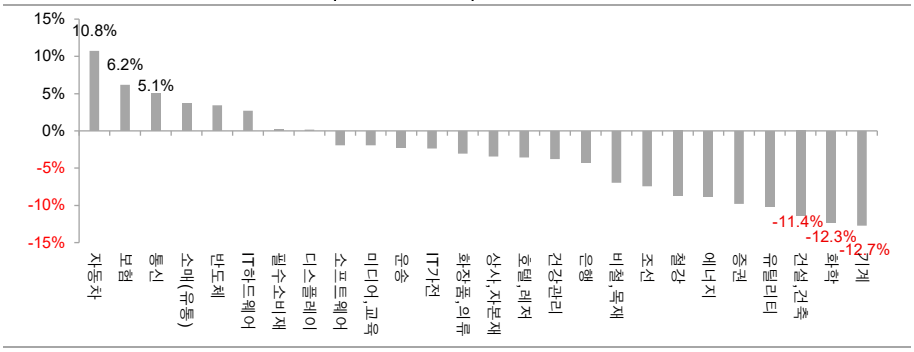
5/15 KOSPI 종가 7,498pt로 주간 수익률 -0.1% 기록하며 소강 상태 진입

지난주 KOSPI는 7,493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0.1%를 기록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자동차, 보험, 통신, 소매(유통), 반도체, IT하드웨어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보험, 통신, 소매(유통) 등 경기방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일부 방어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지컬 AI 확산 기대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로의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고유가 수혜 업종, 경기방어업종에 대한 이익 추정치 상향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화학 업종의 이익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방어업종인 유통,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보험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디어/교육, 디스플레이는 강세장 속에서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펀더멘털 둔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상황이다.

도표 12.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5.15)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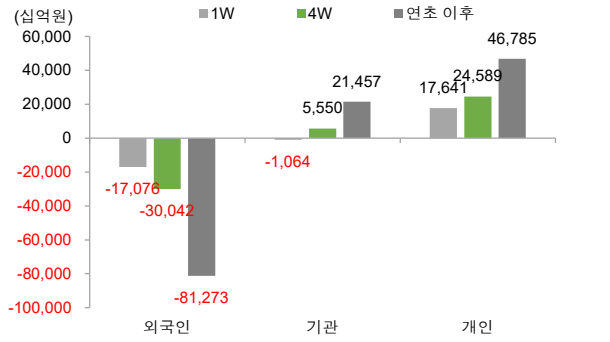
도표 13.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5.15)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4.17	04.24	04.30	05.08	05.15	04.17	04.24	04.30	05.08	05.15
KOSPI	5.7	4.6	1.9	13.6	-0.1	26.4	35.0	39.5	23.5	20.5
KOSDAQ	7.0	2.9	-1.0	1.3	-6.5	2.9	2.7	3.2	3.0	5.3
에너지	2.3	6.0	6.6	2.7	-8.8	6.6	6.6	43.5	41.8	58.5
화학	6.1	7.7	0.7	3.1	-12.3	12.9	5.5	36.5	54.4	61.3
비철목재	5.7	-1.6	-2.4	-1.6	-7.0	3.1	6.0	6.1	2.1	1.6
철강	3.5	6.8	9.8	9.9	-8.7	-0.6	-1.7	0.2	3.5	5.0
건설/건축	2.3	3.3	-1.1	1.8	-11.4	0.3	8.6	10.6	16.7	17.9
기계	8.7	14.0	6.6	9.1	-12.7	3.1	3.7	4.5	4.8	3.7
조선	5.8	16.2	-0.4	-4.2	-7.4	1.9	1.5	3.0	5.0	8.8
상사/자본재	3.7	4.2	3.9	10.9	-3.4	12.7	12.8	13.2	16.8	16.9
운송	0.2	-0.9	-0.9	4.2	-2.2	-8.6	-9.9	-9.2	-6.8	-0.9
자동차	7.4	-2.9	1.6	12.4	10.8	-1.0	-2.8	-3.8	-2.8	-2.3
화장품/의류	5.2	4.8	-3.1	0.0	-3.1	3.6	3.7	5.6	8.6	8.0
호텔/레저	4.1	0.4	0.9	-2.3	-3.6	-0.6	-0.8	0.3	-1.5	-1.2
미디어/교육	4.6	-1.6	1.8	-5.0	-1.9	-2.6	-4.3	-13.1	-13.1	-12.4
유통	7.9	7.0	1.7	1.7	3.7	1.6	2.7	4.3	5.9	9.6
음식료/담배	4.2	0.4	0.8	-0.4	0.2	0.2	-0.8	-0.4	1.5	3.1
헬스케어	4.7	-1.3	-3.4	-2.9	-3.8	1.5	3.5	3.5	3.8	5.5
은행	2.7	-0.9	-0.0	-1.1	-4.3	1.0	1.4	1.6	1.3	1.2
증권	3.9	-1.3	-4.1	14.3	-9.8	6.5	8.0	6.4	4.1	7.0
보험	4.6	-2.8	0.3	9.8	6.2	0.6	0.1	0.1	0.7	5.8
소프트웨어	7.7	-1.0	-1.0	0.9	-1.9	0.6	-0.3	-1.1	0.4	2.1
IT하드웨어	12.5	13.8	2.0	7.2	2.7	7.1	7.2	12.6	14.6	15.4
반도체	6.8	4.5	2.4	24.4	3.4	41.2	55.1	61.7	31.8	26.2
IT가전	5.4	12.8	3.8	3.5	-2.4	-4.0	-5.6	7.0	17.8	27.8
디스플레이	11.2	-1.4	-0.4	4.2	0.2	3.6	-5.7	-9.4	-6.9	-8.1
통신	3.9	-1.3	-3.7	-2.5	5.1	-0.0	-0.3	-0.2	-0.3	-0.5
유틸리티	5.5	2.5	-3.6	-1.6	-10.2	-0.0	-0.3	-0.2	-0.3	-0.5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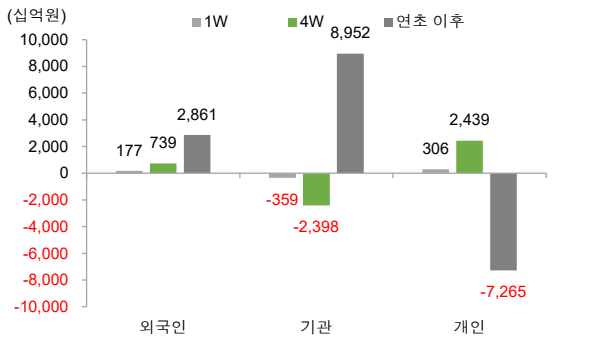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는 순매도 했으나 KOSDAQ은 순매수 했다. 업종별로는 기계, 건강관리,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을 매수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순매도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기관의 경우는 KOSPI와 KOSDAQ 양 시장 모두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 자동차, 상사/자본재, 운송, 소매(유통)을 순매수 한 반면 반도체, 기계, IT가전, 조선, 화학을 순매도했다.

도표 14.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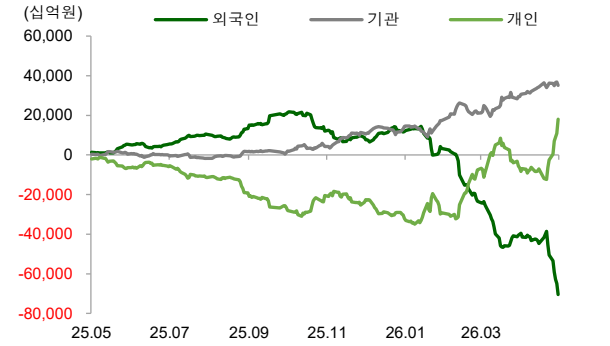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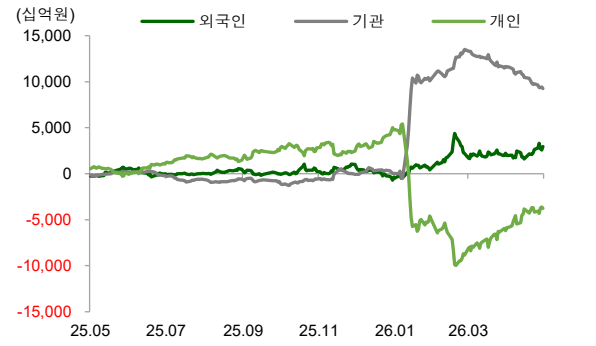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기계	281.4
	건강관리	198.6
	디스플레이	195.1
	에너지	176.5
	철강	165.2
순매도 TOP5	반도체	-14,928.3
	자동차	-1,546.8
	IT하드웨어	-536.0
	조선	-320.8
	증권	-224.3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IT하드웨어	770.7
	자동차	515.2
	상사,자본재	116.4
	운송	97.0
	소매(유통)	95.7
순매도 TOP5	반도체	-831.0
	기계	-608.0
	IT가전	-523.9
	조선	-368.9
	화학	-266.6

주) 2026.05.15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5/1 미 4월 ISM 제조업 지수 한 4월 수출입 XOM, CVX
5/4 BRKB, PLTR	5/5 미 4월 ISM 서비스 지수 미 3월 JOLTs AMD, ANET, PFE	5/6 미 4월 ADP 취업자 변동 DIS, APP, UBER, CVS, DASH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심텍 현대백화점, GS피앤엘, 에스엠 카카오뱅크,	5/7 MCD, GIL, ARM, ANB LG, 에이피알, 한국항공우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SK텔레콤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5/8 미 4월 고용지표 미 4월 실업률 미 5월 소비자신뢰지수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HDC, 현대지에프홀딩스, 원익IPS
5/11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에스오일, 시프트업, 데브시스터즈	5/12 미 4월 CPI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펄어비스, CJ제일제당, 신세계, 달바글로벌	5/13 미 4월 PPI GS, SK이노베이션, CJ대한통운, 더블유게임즈	5/14 미중 정상회담(~15일) 미국 4월 소매판매 AMAT 삼성화재,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JPY Ent	5/15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미반도체, 코리안리
5/18 SK	**5/19** **HD**	**5/20** **4월 FOMC 회의록 공개** **NVDA, CSCO, TJX**	**5/21** **WMT, DE, INTU**	**5/22**
5/25 PANW	5/26 PANW	5/27 LOW	5/28 BOK 금융통화위원회 미 1분기 GDP 잠정치 DELL	5/29 ASCO (~6/2)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